

모두 발언

2024. 9. 1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II.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그간 대응

최근,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후*나,
일부 작물의 작황 악화로 인한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 세계기상기구(WMO), "'23년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74년만에 가장 따듯"

** '24년 주요작물의 선물가격 상승률 : 카카오 130% 커피 32% 고무 48% 등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요소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ESG 관련 시장 형성 및
제도화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에서 ESG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U) '25년부터 대기업 등 공시 예정
(美) '24.3월 기후공시 규칙 발표(현재는 효력정지)
(日) '25.3월 공시기준 확정 예정, 시행시기는 논의중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
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통해
'24.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4개월간
기업,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견수렴기간 중
29개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17개에 이르는 해외투자자**도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 NBIM(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 약 2,250조원의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한국시장에 약 27조원 투자), APG(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 등

※ 국내외 투자자 주요 의견

- ☐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 ☐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 ☐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SSB 기준의 채택은 긍정적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진 한편,
그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111개의 개별기업과
10개의 경제·산업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후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공시해야 할 기업의 의견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주신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Ⅲ.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 총 **106개 중 96개(91%)**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

국제기구에서 공시기준을 확정*하고
EU에서는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가
'29년부터 시행 예정인 점 등
국제적 흐름을 기업들이 고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IFRS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3.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기업들 스스로도
기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인식에 부응하여
기후리스크 파악 및 대응전략 마련,
관련 정보 공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시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시기준의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 범위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보유하게 된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후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요국 중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목적 공시*와 관련,
그 유용성에는 동의하나,
공시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① 법규상 공개되고 있는 정보 :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② 정부부처에서 반영을 요청한 정보 :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현황 등

이런 의견과 관련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투자 등

이러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기후변화 상황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과 보다 원활히 소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두루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